2026
추석
가정예배

민족 고유의 명절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가정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높은뜻 광성교회
GOD'S WILL KWANGSUNG CHURCH

예배초대 ---------- **인 도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베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 **다 같 이**

1절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절 |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절 |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 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기 도 ---------- **맡은이(옆면참조)**

성경봉독 ---------- **베드로전서 2:9~10** ---------- **다 같 이**

9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10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말 씀 ---------- **사랑이 머물고, 흘러가는 가정** ---- **맡은이(옆면참조)**

마침기도 ---------- **가족대표**

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계절을 따라 햇빛과 비를 내려 주시고, 땅이 품은 열매를 거두는 이 계절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기쁘고 감사한 날도 있었지만,
마음 무겁고 앞이 보이지 않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삶이 수많은 이들의 수고와 자연의 돌봄,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아픔을 보듬으며,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만의 평안을 구하기보다 이웃과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생명과 평화를 더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머물고, 흘러가는 가정 | 베드로전서 2:9~10

추석이 되면 우리는 한 해 동안 맺힌 열매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거두는 열매 가운데 오직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한 알의 곡식에도 햇빛과 바람과 비가 필요하듯, 우리의 삶에도 가족과 이웃의 손길이 있었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헤아리는 일에서 시작하여,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한 사랑을 기억하는 일로 깊어집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특별함이나 우월함을 말하는 표현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삶을 향해 부름받았는지를 보여 주는 표현들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으며, 바로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드러내며 산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쩌면 그것은 그리 거창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명절에 만난 가족의 이야기를 조금 더 오래 들어 주는 것, 서운했던 마음을 먼저 풀어 보는 것, 가까운 이웃에게 친절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그렇게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사랑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을 남기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10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자비를 만들어 내는 사람이기 전에 먼저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용납을 받았는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할 때, 우리는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 아름다운 삶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명절을 맞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으로 부르셨는지,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 가정이 자비를 입은 사람들답게 조금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받은 사랑을 서로에게 나누고, 그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작은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